



책가방과 교복 등 산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네팔 어린이들 (2012년 기빙트리 행사).

6 사랑의 모금통



9 미용 이벤트



10 기빙트리 캠페인



11·12 최후의 만찬



14~16 후원을 기다립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 571-432-9868 / 703-968-3010

이메일 : caritasva@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caritaswonjuva.com>

고국에서 온 편지

고통 받는 이웃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삶으로



최기식 베네딕토 신부

‘빛이 되라!’ 하느님 말씀이 원주교구 초대교구장인 고 지학순 주교님 인장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원주교구는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음에 충실하였습니다. 참 생명과 사랑을 나누며 참 평화를 주는 세상 구원자의 참 모습에 주력하였습니다. 빛의 모습이었음을 자부합니다. 한 두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인한 것이기 보다 온 교회 안에 참 신앙을 살고 참 사랑을 사는 분들을 통한 하느님의 축복이었고 여러 회원님을 통한 주님의 사랑이고 은총이라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원주교구사회복지법인 설립 25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박람회, 바자도 겸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감사드리는 행사였습니다. 교구 창설 이후 어려움 속에 외국의 도움을 받아 여

러 가지 사랑의 일인 사회복지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우리의 힘, 정부의 지원으로 복지사업을 시작함이 법인설립이라 봅니다. 여러 회원님께서 함께 하기 시작함이 법인 설립이라 해도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서울, 인천, 수원, 미국 여러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심이 큰 동력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또한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복지사업을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 회원님께 축하하고 감사 드리는 마음 어떤 말과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여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나누던 이웃들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보는 큰 거울이라 합니다. 선종하신 김추경님이 자주 쓰시던 말씀입니다. 원주교구사회복지회는 여러분의 이웃이고 삶의 길에 동행자였습니다. 마주 하

시면 언제든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생명, 아름다운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면 좋겠습니다. 외면하거나 등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머리와 말로 하는 사랑은 향기가 없는 것이라니 가슴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온 세상의 고통받는 이웃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삶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도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살아있는 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회원님들 하시는 일과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글 심는 순서

	글 심는 순서	
2	고국에서 온 편지 고통받는 이웃을 가슴으로 안고 기도하는 삶으로	최기식 신부
	카리타스 란	
3	이사장 글 - 동전을 모으듯 사랑을 모아 후원회장 글 - 복지는 더 큰 정의를 이루는 것	정인준 신부 유홍열
4	편집인 데스크 - 버킷 리스트 쓰기	정영희
5	복지사회의 조감도	신현만 신부
6	티끌모아 태산 - 사랑의 모금통	차 모니카
7	복지재단 이렇게 활동했어요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 이사회 개최 녹음도서 보급	편집실
8	복지재단 이렇게 활동했어요 라인댄스 (초급 3) DVD 출시 김 데레사 씨,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서 공로상 수상	편집실

9	복지재단 이렇게 활동했어요 불우이웃 돕기 미용이벤트	편집실
10	복지재단 이렇게 활동했어요 원주 카리타스 기빙트리 캠페인	편집실
11-12	National Gallery에서 보는 최후의 만찬	이순희 아녜스
13	공포와 혼돈의 해외 자산 신고(OVDP)	이승재
14	길원이의 꿈을 이뤄주세요	편집실
15	우리 요양원의 해결사가 되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장해영
16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편지	이 아녜스 수녀
17-18	후원회비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19	후원금 내역 (2013년 1월 ~ 11월)	
20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카리타스(Caritas)란?

라틴어로 ‘카리타스(Caritas)’라고 쓰며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카리타스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말하기도 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구나 단체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마 바티칸 시국에 있는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와 전세계 198개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54개 카리타스는 상호협력함으로써, 특히 제3세계 국가의 구호 및 복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글

동전을 모으듯 사랑을 모아



정인준 파트리치오

카리타스 복지재단 이사장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임신부

요즈음 식당에 가도 동전으로 팁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언제부터인가 최하가 1달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동전은 천덕꾸러기 신세, 화폐가치로는 소외된 무관심에 묻히는 신세가 되었나 봅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으로 동전을 받으면 처치 곤란해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는 자동차 안의 컵 넣는 곳이나 설함에 넣어 두기 십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당에서는 신자들이 돼지저금통을 나누어 받고 그 안에 동전을 모아 내년 1월 5일 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의 소중한 선물

을 바친 것을 기념하는 대축일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넣으면서 ‘무관심의 마음’을 생각하기로 했지요. 우리가 동전을 무심히 자동차 컵 넣는 곳이나 책상 설함에 넣듯이 내 주위의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사실 무관심의 마음이 더 많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잊혀졌던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련의 행사를 치루곤 합니다. ‘불우이웃돕기’라는 주제하에 자선냄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도 성금을 거두는 캠페인을 벌이곤 합니다. 물론 그 운동이라도 있으니 정말 소외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기는 합니다.

‘콩 한 쪽도 서로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듯 우리 본래의 심성은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선한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쫓길 때도 있고 세상의 차가움도 겪어 볼 때가 있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차지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자본주의 사고에 자신을 밀쳐 버리고 살게 되곤 합니다. 거기다 현대의 개인주의와 영향을 하다 보니 점점 내 이웃, 특히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굴러 다니는 동전에게 만큼이나 무관심으로 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무관심의 동전을 무관심의 소외된 이웃에게’라는 주제하에 돼지저금통 캠페인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회개하며 동전을 저금통에 넣을 때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근심하고 걱정을 함께 하자는 뜻이지요. 물론 신앙인들에게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도도 함께 주문합니다. 무심히 동전을 모아 낚다 보면 소외된 이웃에 무디어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검소한 수도자의 삶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당신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삼으신 것은 중세에 나병환자와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본받으려 하신 것입니다.

인도 캄카타의 빈민가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한평생을 사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나눔에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동전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관심의 동전을 모으듯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만을 위한 차가운 삶이 아닌,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의 따뜻한 내가 될 수 있겠지요.

후원회장 글

복지는 더 큰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것



유 흥 열

원주카리타스 후원회장

한 해를 거르고 회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행사도 없었고 후원회 안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도 있고 또한 제 게으름 탓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지가 나오도록 애써주신 편집인과 임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회 데스크 앞을 지나가다 회지 안 나오느냐고 가끔씩 문의 해 주셔서 저를 부끄럽게 만들어주셨

던 몇 분의 회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날들을 헤아려가며 사는 편이 아니라서 정확히 언제부터 이 인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썼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매 번 쓸 말이 없어 무던히도 땀을 흘리고 결국 원고 마감일이 지나고서야 몇자 적어 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처음에 썼던 글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글에서 제가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기에는 부족하기에 다만 능력이 있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후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몇년을 돌아켜 보면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이 아무리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었다고는 해도 후원회의 수입 규모가 많이 줄어든 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 회원의 증가에 비해 후원을 중단하시는 회원이 많은 것도 저의 비사교적인 면 때문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속담에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라는 말이 있지요. 사실 저도 ‘old dog’라고 불릴 만큼

은 나이를 먹은 탓에 아무래도 그분이 빨리 오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후원회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까 회장을 맡아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회장은 아니라도 재능기부나 시간기부의 봉사를 하실 분들도 연락 주세요.

사실 이번 호에 무슨 말을 쓸까 고민하다 처음 생각났던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교황권고 (apostolic exhortation) 이라고 한다네요) 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그 말씀에 토를 달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난 3월 처음 교황으로 선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던 날 모 방송국에 끌려가서 새 교황님께 바라는 것을 한 마디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생각나서 었습니다. 사실 새 교황님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은 더더욱 없는 터에 방송국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들은 교황님의 소개 중에서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며 가난한 이들과 같이 생활하셨다는 것이 생각나서 복지에 더 관심을 가지는 가

톨릭 교회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 같은데 실제 방송이 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신 말씀은 복지에서 더 나아가 평등과 정의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미국의 일년 가계평균 소득이 5만 달러 정도라는데 이것은 최고액 수입을 올리는 대기업 CEO 회장님의 하루나 이틀치 봉급에 해당된 다거나 오늘 아침 한국 뉴스에서 국민의 87퍼센트가 ‘돈이 제일 큰 힘’이라고 답했다는 여론조사결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처한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세상’은 나보다 못한 이웃에 동정이나 연민에서 도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더 큰 사회 정의를 위하여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라는 큰 이상을 가지고 저희 카리타스 복지재단을 계속 후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편집인 데스크

‘버킷 리스트’ 쓰기



정영희 기자

카리타스 편집인·워싱턴 한국일보



‘버킷 리스트(Bucket list)’,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꿈의 목록을 의미하는 말로 본래는 중세 때 목매 죽는 이들이 목에 밧줄을 감고 양동이를 차버리는 행위를 담은 ‘양동이를 차다(kick the bucket)’에서 유래했다.

또한 동명의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용어가 일반화되며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88가지’, ‘죽기 전에 꼭 가 봐야 할 곳’, ‘한국인,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7가지’,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은퇴하기 전 꼭 알아야 할 49가지’ 등 비슷한 제목의 저서가 출판되는 붐을 이루기도 했다.

아직은 버킷 리스트에 대한 정의와 이미지의 편차가 커서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은 사람들의 전유물 또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호사스런 여유로

움, 젊은이들의 각기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또 새해 다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지난해 한국 배재대 학생들은 ‘버킷 리스트 100’ 팀을 결성했다. 학내 동아리에서 만나 대학생활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실천해보자고 의기투합해 결성했다. 이들은 만남, 봉사활동, 여행, 자격증, 이색경험, 축제참가 등 8개의 카테고리를 설정한 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졸업할 때까지 모두 100가지를 달성하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였다.

2014년 갑오(甲午)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버킷 리스트를 써 내려보면 어떨까.

버킷 리스트는 거창하지 않다. 덴 펜웰(Dan Penwell)이 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88가지-나는 지금까지 왜 못하고 살았을까’에는 토요일 오후를 도서관에서 보내라, 매일 8잔의 물을 마셔라,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라,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라, 촛불 밝힌 저녁 식사로 배우자를 놀라게 하라, 매일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어라, 정보의 바다를 헤엄쳐라, 꿈같은 휴가 계획을 세워라, 삶을 단순화 시켜라,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 카드를 보내라 등등 소소하고 자잘한 일상과 연계된 것들이 리스트에 올려져 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큰 명제 마침표 앞에 섰을 때 갖는 후회들은 어떤 것일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누군가를 위해 나눔을 아끼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조금 더 일찍 용서했더라면 등등이 가장 많다고 한다.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소하고 하찮기 때문이다.

필자 개인의 버킷 리스트 중 하나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방문이다. 예수의 제자 성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러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걸어 온 약 800km의 길을 걸으며 겸손과 순명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 순례길을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다.

제임스 딘은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morrow)”라고 했다.

소박한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삶 등 인생의 해피엔딩, 새드엔딩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미주 한인 1세대들은 그동안 ‘확대와 성장’에만 주력,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이 살아왔다.

새해에는 ‘버킷 리스트’를 써 본 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간과해 왔던 소소한 것들의 실천과 그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사랑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길 소망한다.

복지사회의 조감도



신현만 시몬 신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어떤 사람이 지옥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지옥에 가보니 먹을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각자 긴 젓가락으로 먹을 것을 집어 먹어야 하는데 젓가락이 워낙 길어서 집은 것을 입에 넣지 못하고 애만 쓸 뿐 결국 굶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도 역시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보기 좋게 기름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지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옥과 다른 것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옆 사람은 또 옆 사람에게 주면서 모두가 배불리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예화는 복지사회를 꿈꾸는 사회나 사람들에게 쉽게 공감을 주는 교훈입니다.

최상의 복지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고유함이 존중되며 가난하지 않고 외롭지 않으며 억울함이 없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희망과 행복이 있고 또한 평화와 사랑이 넘실대는 ‘福된 공동체’ 사회입니다.

과연 이런 복지사회가 가능한 일일까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마치 지상천국의 조감도를 보며 공사를 시작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복지사회의 건설은 기초 공사가 우선 잘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로부터 시작하여 기초 콘크리트가 잘 다져져서 지상으로 돌출될 간물이 튼튼하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기초공사는 ‘복지의 영성’입니다. 국가나 사회기관이 베풀어주는 물질의 혜택의 일방통행으로 복지를 이루려 한다면 결코 성공하기 힘듭니다. 나부터 먹고 보자는 식으로 자기 욕심만 채기려 한다면 음식이 있어도 굶주릴 수 밖에 없는 지옥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숙한 엄마는 자신이 배가 고파도 어린 아이부터 먹이려 합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미숙하기에 엄마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빼앗아 자기 입에 넣습니다. 이처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이 복지사회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콩 반쪽이라도 나누어 먹을 줄 아는 나눔의 마음,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이웃사촌의情有를 찾아오는 길입니다. ‘새 마

음 운동’이라고 해야 할지, ‘참 마음 회복 운동’이라야 할지, 아무튼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복지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사회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외부 조감도를 보기 전에 기초공사의 설계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보이지 않는 마음 한구석에 ‘사회적 약자’부터 섬기고 나누려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직적 구조보다는 수평적 구조로 복지사회의 기초를 닦는 일에 먼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사회의 지도자들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지 살펴보고 나눔과 봉사를 생활화 할 교육에 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 봅니다. 자원봉사의 가치와 나눔의 위력에 대한 체험을 계속 홍보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없어서 불행한 사회가 아니라 나누지 못하고, 내 것만을 먼저 챙김으로 인해 삶 속에서 지옥의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첫 번째 일은 무엇보다 나눔을 생활화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이 생활화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분명 지상천국과 같은 조감도는 단순한 이상만은 아닐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 사랑의 모금통

차 모니카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운영이사

TV나 신문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 사정을 접하고 충동적으로 도움을 보내는 분들은 많아도, 그 분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속 도와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사연을 읽거나 직접 목격하면 돕고 싶다가도 곧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 이런 감정을 무시하거나 잊고 산다. 올바른 관심이란 그 분이나 가족이 혼자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혹시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낭비할까 우려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믿는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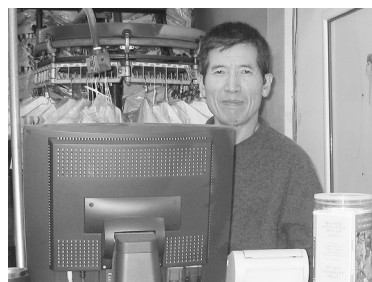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많은 후원자 분들은 도움을 주고 싶은 곳(천사들의 집 등 시설과 아동결연)을 정하여 후원하고, 재단에서는 그 분들의 후원금을 해당 시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금통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카리타스 복지

재단 이사회에서 사용할 곳을 정한다. 응급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자연 재해 때문에 아쩔 수없이 남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 또는 어떤 가족에서 그 가족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의 능력에 보탬을 주어 그의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헤어지지 않고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업소에서 손님들이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잔돈을 모금통에 넣거나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모금통 후원금에 보태거나 하여 모인 후원금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매년 8천 여 달러에 이른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꾸준히 도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업소들이 모금통을 설치하여 불우이웃돕기,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모금통 설치 업소

BP short food (박진욱)
Ballston Cafe (Kim, Mike)
Beulah Cleaner (김영희)
Brafferton Cleaners (이갑용)
Buying Together
Capitol Cafe (서 제임스)
Chesterbrook Excel (김영술)
City Cleaner (김 안젤라)
Convenience Express (이창권)
Fair Lakes Cafe (김 데레사)
Fair Oaks Cafe (Kim, Jimmy)
Georgetown Valet (김남식 안드레아)
Great Falls Cleaner (박원균)
Green Cleaner (이수호)
John's Cafe (김재영)
Jon's Cafe (최용태)
Liberty Cafe (박 루시아)
MayNine Inc. (용복순)
Montclair Cleaner (이애니)
Monument Cafe (최지돈)
Nada Cafe (choi, Sandy)
Paddock Cleaner (한귀병 토마스)
Skyline Cafe (전덕준/전선희)
Spice & Beyond (윤태혁/최애선)
Sun Dry Cleaner (권순 리오바)
Sycolin Deli (곽영민 아네스)
Uptown Market (김소피아)
Yes!(Cha, Gary)
헤어스케치 (이정연)

복지재단 이렇게 활동했어요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 정기이사회 개최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정인준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임신부·회장 유홍열)은 지난 2월8일(금) 애난데일 소재 한강식당에서 제10차 법인 정기이사회를 갖고 지난해(2012년) 사업 및 재정 보고와 2013년 사업계획을 의논, 결정했다.

복지재단은 지난해 14만4천여달러를 모금하여 원주 사회 복지관, 횡성 종합사회복지관, 영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우의 집인 천사들의 집, 살레시오의 집 등 고국에 있는 50여개의 시설과 필리핀, 네팔, 파푸아뉴기니 등의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유홍열 회장은 “불경기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모금액이 줄었지만 중추성심학교를 위한 특별 모금이 2011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2013년 사업으로는 후원회원 및 사랑의 모금통 보급 확산, 느미라지 토탈 헤어살롱과 함께 하는 미용 이벤트, 고국을 포함한 4개국의 가난한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기빙트리 산타 행사, 후원회지 발간, 녹음 도서 보급 등을 들었다.

또한 유 회장은 텔리나 세탁소 등의 업소에 설치한 ‘사랑의 모금통’은 현재 100여개 업소에 설치되었는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지난 한 해 동안 8천500여 달러가 모금되었다고 밝혔다.

복지재단의 이사장인 정인준 신부는 “콩 한쪽도 나눠먹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남을 도와주는 순수한 마음이 우리 교유의 좋은 점인데 우리 이민자들이 이민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좋은 점을 키우며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올해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한 안젤라 이사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홍열 회장, 노상문 이사, 유자경 이사, 정인준 신부, 김 헬리시아 사무장.

(사진제공: 한국일보)

도 가난한 이들과 사랑의 정신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회원은 매달 12달러를 후원하는 일반

회원,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후원하는 특별회원, 특정 아동에게 매달 60달러씩을 후원하는 아동 결연, 연 200달러를 후원하는 네팔 아동 급식지원

등이 있으며 현재 약 25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후원문의: 571-432-9868



녹음 도서 보급

녹음도서(또는 소리도서)는 노안이나 난독 등으로 책을 읽기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테이프나 CD등의 매체에 음성으로 녹음하여 들을 수 있게 만든 책이다.

서울에 있는 성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산하 성동 녹음 봉사센터에서는 녹음 봉사자들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녹음도서를 만들어 보급하여 왔다.

그러나 녹음도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안, 안구건조증 등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겪는 사람도 많다. 이를 위하여 성동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2009년부터 녹음 도서를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에 공급함으로써 녹음 도서의 혜택을 미국에 사는 해외동포와 나누고 있다.

성동 녹음 센터는 근래 녹음한 성경과 도서를 굿뉴스 가톨릭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굿뉴스 소리 도서 웹사이트(<http://info.catholic.or.kr/audiobook>)에 실린 도서를 포함하여 현재 77권의 책을 수록한 CD를 주일마다 성 정 바오로 성당 친교실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성동 녹음 봉사센터에 보내져 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 및 사업과 기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인다.

복지재단 이렇게 활동했어요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정인준 파트리티오 신부·회장 유홍열)이 불우이웃 돕기의 일환으로 라인댄스 DVD 1, 2집에 이어 제 3집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복지재단이 제작한 DVD 제 3집은 카리타스가 개설한 라인댄스 초급 3반 강습 과정을 담은 것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Eee Zee Boogie, Volare, Good Time, Tennessee Waltz Surprise 등 12개의 댄스가 수록되어 있다. 댄스 음악으로는 기존의 댄스 음악 외에 현숙의 '웃어주세요', 이 시스터스의 '서울의 아가씨', 노사연의 '새처럼 날아서' 등 흥겨운 우리 노래도 사용하여 친근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 DVD에는 강사 홍 세실리아 씨와 8명의 수강생들이 자원봉사로 출연했다. 홍 강사는 강사료 전액과 성금을, 그리고 수강생들은 강습비와 성금을 불우이웃돕기에

라인댄스(초급3) DVD 출시

“운동하며 불우이웃 돕자”



동참하는 의미로 DVD 제작비에 보탬다.

DVD는 개당 20달러에 판매되며 수익금 전액은 이미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라인 댄스 초급 1, 2집의 판매 수익금 전액과 함께 고국의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필리핀 파야타스 어린이 집 후원 등 지구촌 여러 곳의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진다. 우편 주문 시에는 3달러의 우송료가 추가되며 5개 이상 주문 시에는 우송료가 면제된다.

라인댄스는 파트너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으며 운동효과가 크다. 또한 카리타스 라인댄스 동영상은 인터넷 유튜브(www.youtube.com)의 검색란에 'caritas wonju line dancing'이라 입력하면 볼 수 있다.

▷ 우 편 주 문 :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메모란에 DVD 구입 명기)

▷전화 문의 및 주문: 571-432-9868

축하합니다~ 김 데레사씨,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서 공로상 수상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정인준 신부·회장 유홍열) 초대회장을 역임한 김정자 데레사 씨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법인설립 25주년 행사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지난 8월 23~24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린 법인 설립 25주년 사회복지박람회에서 김 씨는 후원부문 공로상 수상자로 발표됐다.

김 씨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카리타스 초대회장을 맡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산하 후원회에 머물던 카리타스를 범동포 및 국제적 자선기관으로 발전시키며 강원도 지역의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결손가정아동, 장애인, 독거노인과 네팔,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등의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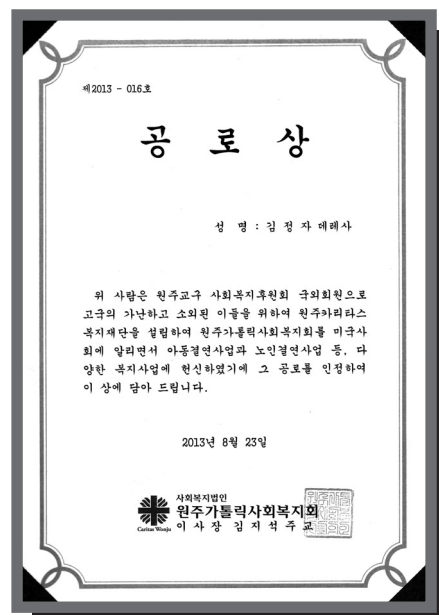
이후 홍보이사로 복지재단 일을 홍보하며 기금 모금에 앞장섰으며 2009년부터는 성당 산하 하상문화방송 대표 일도 맡았으나 요즘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선에서 물러나 뒤에서 돕고 있다.

김 씨는 1987년 버지니아를 방문한, 당시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후원회장이었던 최기식 신부를 통해 처음으로 '천사들의 집' 중증장애아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감명 깊게 들은 후 후원회원이 되었고 고국 방문시 복지시설들을 방문하면서 후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다고 한다.

공로상 수상에 관해 김 씨는 “세상에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 내가 그들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다만 환경을 잘 타고 났을 뿐일 텐

데...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 미안한 마음은 나눔을 통해서 풍요로워지는 것 같다”며 “이 공로상은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 소중한 마음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 씨는 “남을 돕는 일이 가장 뜻있는 삶, 풍요로운 삶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느님께서 해결해주신다고 믿는다”며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이렇게 활동했어요

불우이웃 돕기 미용 이벤트 느 미라지 미용실 '사랑의 봉사'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은 지난 10월 19일과 20일 양일 간 성 정 바오로 성당 친교실에서 제7회 미용 이벤트를 갖고 6,934달러의 성금을 모았다.

느 미라지 토탈헤어살롱(원장 캐서린 박)의 특별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캐서린 박 원장과 8명의 헤어 디자이너들은 점심시간도 아껴가며 저렴한 가격에 헤어 컷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퍼머 및 마사지 등 각종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무료 메이크업 강좌와 피부관리 상담도 곁들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모인 성금은 강원도 산간 지방의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의 난방비 보조로 보내졌다. 카리타스는 느 미라지 토탈헤어살롱과 함께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5만4천여 달러의 후



원금을 조성하여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했다.

박 원장은 헤어컷 수입의 전액과 상품권 판매액의 50%를 카리타스에 도네이션 하기로 하였으나 불경기의 여파로 상품권 판매가 예상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상품권 판매액 전액을 도네이션 했다.

카리타스 이사장인 정인준 파트리치오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임신부는 미용이벤트가 열린 친교실을 찾아 미용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박원장은 "행사장을 찾은 몇몇 분은 머리도 안 자르고 슬며시 모금통에 후원금을 넣어주며 수고한다는 따뜻한 말을 해주고 가셔서 힘이 났다"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원주카리타스의 유홍열 회장은 "7년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캐서린 원장께 깊이 감사드리며 강원도 산간에서 어렵게 살고있는 독거노인과 그 손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이렇게 활동했어요

원주카리타스 기빙트리 캠페인

5개국 불우아동 크리스마스 선물 기금 모금

원주카리타스복지재단(이사장 정인준 신부·회장 유흥열)이 5개국의 불우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하기 위하여 기빙트리 캠페인을 벌인다.

올해로 6번째 맞은 이 행사는 아동들이 원하는 선물 내역이 적힌 카드를 기빙트리에 걸면 후원자들이 20달러씩 내고 떼어가면서 대신 후원자의 이름이 적힌 카드가 기빙트리에 걸리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를 위해 12월 첫 주 성 정 바오로 성당 현관에는 1,076개의 카드가 걸린 2개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었다.

올 행사에 참여한 아동은 원주가톨릭종합복지관, 천사들의 집, 원주 청소년의 집 등 17개의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회 소속시설의 274명, 목포 카리타스수녀회가 관리하는 2개 시설의 40명, 그리고 해외의 762명으로 총 1,

076명이다. 해외는 네팔 산간 학교의 200명, 파푸아뉴기니의 200명, 필리핀 뼈아따스 어린이 집의 312명,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50명 아동들이다.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선물은 조부모와 함께 사는 한국의 아이들의 경우는 인형, 게임기 등이 많았고, 네팔의 학생들은 학용품과 교복, 운동화 등인데 반해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마다가스카르의 아동들은 쌀, 빵, 우유, 케익 등 식품이 많다.

2008년에 처음 시작된 기빙트리 캠페인은 그 해에 1만 6,070 달러를 모금한 이래 해마다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2만2,340달러의 성금을 모았다.

유흥열 회장은 “카드를 읽고 떼지 않고 기부만 해 주시는 분, 성금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분 등 덕분에 해마다 신청한 아동 수 보



다 후원자 수가 더 많았다”며 “불우한 아이들이 훈훈한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빙트리 행사 참여는 수표에 수취인을 Caritas Wonju, 메모란에 ‘산타행사’로 써서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된다.

문의: 571 432 9868

주소: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아래 두 글은 2012년 기빙트리 캠페인 후 보내온 감사편지입니다

우리집에도 산타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황은남

천사들의 집, 행복있는 집 교사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저희도 덕분에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여러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선물로 아이들이 더 많이 행복해 하였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함께 옆에서 지켜보셨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매번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마음 한편에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편지로 써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순리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관심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덕분에 저희는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않은 성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 이번 선물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과 인형, 동요책을 준비해서 주었더니 오래 간직해야 한다고 모두들 소중한 선물을 간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성탄 선물보다 여러분들의 관심에 더 기뻐하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후원자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돌봐주는 것으로, 저희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씩씩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착한 꿈들이 되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늘 기도 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희망의 산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추운 겨울 아동과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달해 주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신현만 신부님과 함께 직원 12명은 12월 24일 월요일에 ‘희망의 산타’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중 하나로 후원자님과 아동간의 지정결연 후원방식으로 아동들에게 케이크, 독거노인들에게는 내복을 전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일 아동이 있는 16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12명의 직원들은 신나는 캐롤과 함께 “Merry Christmas!”를 외치며 아이들에게 덕담과 함께 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불쑥 찾아온 산타 할아버지를 처음 본 아동들은 많이 쑥스러워 했지만 금새 환한 얼굴로 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선물을 받아들고선 방방 뛰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산타와의 기념사진을 찍자마자 선물을 뜯는 친구부터 산타할아버지와 직원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친구까지 다양하게 표현하는 친구들 덕분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의 산타’는 미국 ‘버지니아 원주후원회’에서 35명의 아동에게 선물을 지원해 주었으며, 49명의 각 개인후원자님들의 성함으로 35개의 케이크와 29개의 내복을 각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영하의 온도로 추운 겨울이지만 후원자님들



의 많은 관심과 나눔의 손길로 인하여 올해도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of Art)에서 보는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

이순희 아네스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Smithsonian Museum)은 19개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박물관으로 미국 심장인 수도의 예술적 자부심과 문화적 저력의 상징이다. 이 중 내셔널 갤러리는 순수미술 박물관으로 시대를 아우르는 수 많은 세계 명작의 정수를 보유하고 있다. 내셔널 갤러리 큐레이터는 온라인 감상자를 위해 45점의 ‘하이라이트’ 컬렉션을 선정해 놓았고, 관람객을 위해서는 12점의 명작을 선정해 ‘1시간 내에 보는 숏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수 많은 명작 중 갤러리가 보유한 35점의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중 미술사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는 세계적인 명작 3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미술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지하묘지인 카타콤의 벽화부터 시작된다. 초기 기독교 미술은 작품 자체의 목적이 종교적 이념 전달과 대부분의 문맹자를 위한 글의 대신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동시대 예술가는 성서라는 내러티브를 단일 화면에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성서적 상징, 기호, 은유, 표징들을 등장시켰다. 최후의 만찬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로 어원은 그리스어로 유카리스트(Eukharistia) 영어로는 뎡스기빙(Thanksgiving)이다. 내용은 그리스도가 유월절 밤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며 죽음을 알리고 배신자를 지목하는 것이다. 또한 12사도에게 자신의 삶과 죄인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데 이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영성체를 통한 영원한 생을 얻는다는 인류 구원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 그림의 핵심요소는 그리스도와 12사도, 빵과 포도주 그리고 유다이다.

성 정 바오로 성당 제대의 전면에 조각된 <최후의 만찬>(1495~1497년)은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1452~1519)의 모작이다. 모든 기독교 도상 중 최고의 명작이자 대표작으로 꼽히는 원작은 이탈리아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 벽화로 성당 제대는 원작의 인물 부분만을 표현한 고부조의 나무 조각 작품 이다. 안정적인 수평적 구도의 원작은 과학적 원근법의 결정체로 중앙의 그리스도의 머리가 소실점이 되어 배경의 모든 선들이 수학적 법칙에 종속되는 정확한 구성을 보여주는데

제대에서는 아쉽게도 확인할 수가 없다. 대신 중



레오나르도 다빈치 <The Last Supper> 모작, 성 정 바오로 성당 제대

앙 점상각형의 그리스도 자세와 세 명씩 조를 이루는 4 그룹의 사도들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배치하였지만 다양한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부조는 배신자를 지목하는 극적인 순간의 사도들의 동요와 긴박감을 입체적인 조각 특성으로 잘 살리고 있다. 유일하게 식탁에 팔을 올린 인물이 유다로 왼쪽 보라색 초에 가려진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다. 다빈치는 명료한 형식미와 숭고한 주제를 다룬 고전주의 절대미학이 그대로 반영된 독창적인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제대를 제작한 장인은 신자들과 마주보는 위치에 이 유명한 다빈치의 도상을 새김으로써 장식적 효과와 성찬식의 기원을 의미 깊게 알리고 있다.

르네상스의 수평적이고 평면구도의 공간을 벗어난 18세기 베니스의 화가 리키 세바스티뇨(Ricci, Sebastiano 1659~1734)의 <최후의 만찬>은 역동적인 바로크 형식을 잘 보여준다. 평면에 조각적인 입체감과 공간감 확보를 위한 그리자이유 기법으로 그린 아치에 들어서면 사선의 식탁 그리고 문과 그 뒤편의 깊숙한 열린 공간으로 시선을 지그재그로 끌고 간다. 대각선이나 사선 구성처럼 이 구성은 바로크 화

가들의 즐겨 사용한 화면형식 중 하나이다. 정면 아치와 뒷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그림자에 의한 명암대비로 사물의 양감과 강렬한 운동감을 주는데, 여기서 바로크 빛의 미학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배신자를 지목하는 긴박한 순간 사도들의 심리적 동요를 보여주는 에너지 넘치는 제스처와 과장된 표정으로 압도된 상황은 흰 식탁보에 의해 더욱 드라마틱하게 보인다. 순간 돈주머니를 움켜쥔 채 급하게 일어나 그리스도에게 등돌려 떠나는 유다 옆에 의자가 나뒹굴고 충성의 상징인 개는 등돌리고 있다. 무질서하고 불규칙해 보이는 화면 구성은 베니스의 청명한 빛을 띤 풍요로운 돈과 색채로 전체에 종속되는 부분을 통한 균형을 강조한 바로크식의 질서와 엄격한 논리를 유지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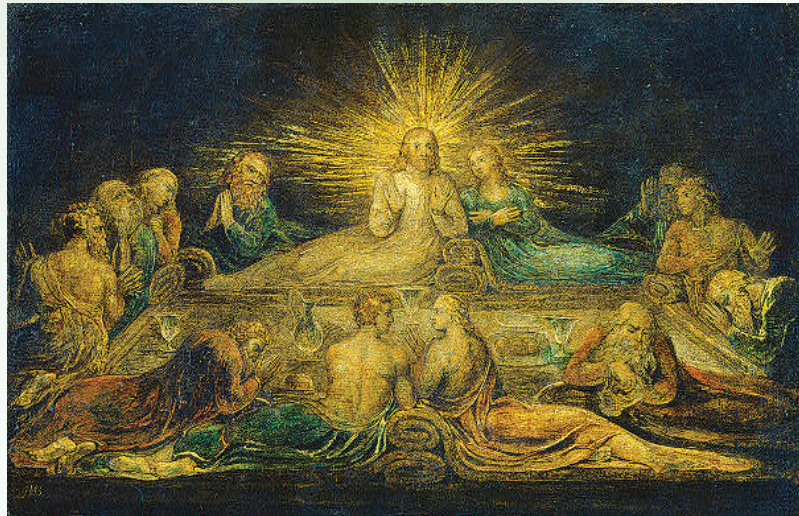
리키 세바스티뇨 <The Last Supper> 유채화 67 x 104 cm, 1713/1714

고전주의의 이성중심의 사고와 이상주의의 형식미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낭만주의는 상상이나 꿈과 같은 주관적 표현이 특징인데,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의 〈최후의 만찬〉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실제로 신앙심 깊은 예술가로 초상화나 풍경화처럼 인물과 자연의 외관을 복제하는 회화를 경멸하고 묵상 중 상상하는 신비의 세계와 예언, 성령의 환상 등으로 독특한 신화를 창조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도를 둘러싼 빛나는 금색 선의 후광을 중심으로 우아한 선으로 묘사된 낙담한 사도들은 검은 바탕색과 강렬한 음영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 그림은 미술사적으로 전통과 과도기의 선상에서 창조된 몽상적이고 신비로운 아우라(Aura)는 생생하고 짙은 호소력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현대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블레이크 또한 유다의 인물표현에 망설임이 없었는데, 예수께 등을 돌린 채 손바닥에 돈을 세고 있는 더 없이 세속적인 속물로 그리고 있다. 블레이크의 시대 감각을 벗어난 표현과 상징적 언어는 동시대에는 공감이 어려워 혹평을 받았지만 20세기에 위대한 예술가로 재조명되었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24~2011.10.5)는 생각이 막힐 때 블레이크의 시집으로 마음을 정화하였고 그의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20세기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대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1904~1989)는 많은 종교적 주제를 재구성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최후의 만찬〉에 쏟아진 대중들의 반응과 논란은 뜨거웠다. 이 그림은 1955년 내셔널 갤러리 기증 당시 인상주의 화가 르노와르의 그림 자리에 대체되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그러나 초현실주의의 무의식, 우연, 꿈과 같은 초월적 세계와 불가사의한 주제의 화풍과는 다르게 이 그림은 전통적인 고전주의 형식을 표방하고 있다. 절대미의 기준인 화면의 황금 비율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좌우 12사도의 완벽한 대칭 그리고 5각형 배경 프레임(frame)은 다빈치식의 치밀한 수학적 계산으로 구성된 것이다. 종교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하는 모더니스트(modernist)답게 정적인 구도 안에서 투명한 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역광의 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 공간에서 치르는 만



윌리엄 블레이크 〈The Last Supper〉, 템페라, 30.5 x 48.2 cm, 1799

찬은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양팔을 벌린 기이한 누드와 시스루(See-through)의상을 걸친 듯 환히 드러난 예수의 상반신, 여기에 정체불명의 사고 집단 의식을 연상케 하는 하얀 가운의 사도들은 원주체의 종교적인 거룩함과 거리가 먼 괴리감을 주고 있다.

독일의 신학자는 1956년 『TIME』지에 종교적 본질을 제거한 형식만을 모방한 키치(Kitsch·저급미술)라는 혹평을 하기도 하였다. 대중에게 〈최후의 만찬〉은 어차피 현실이 아닌 상상 속 내러티브다. 종교적 교훈을 강요하는 듯한 부담스럽고 이질적인 전통성 그림과 달리의 판타지나 미스터리적 가상세계를 불러오는 몽상적인 화면을 비교하면, 같은 상상 속 주제일지라도 현대인은 시각을 단번에 사로잡는 아

름답고 자극적인 달리의 화면에 매혹 당하고 열광한다. 달리는 여기서 유다에게 배반을 의미하는 색인 노란색 가운을 입혔는데, 이 주제의 작품에서 유다를 찾는 것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예술가들은 유다를 인물이나 달리처럼 노란색으로 선명하게 혹은 모호하게 표시한다. 나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동행하는 지인들에게 유다 찾기를 숙제처럼 내는데 의외로 잘 못 찾는다.

4점의 그림을 통해 600년 간의 미술의 형식적, 미적 변천사를 보았다. 기독교 미술은 종교교육이자 일종의 신앙 행위로 동시대인들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주제가 이천 년을 넘어 현재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주목되는 이유는, 첫째로 미사의 영성체 의식과 땀스기빙이라는 온 인류의 추수감사 축제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다빈치라는 거장의 완벽한 한 장면이 주는 강력하고 과감한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이는 그림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이 그림에 대한 오마주(hommage)는 패러디 재구성, 모작, 복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며 대중의 끊임없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원 주제에 내재된 중요한 내용의 힘이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믿었던 제자의 배신에서, 우리는 헌신을 지독히도 바라지만, 배신은 영원히 피하고 싶어하는 단순한 삶의 논리를 본다. 여기에 인류 배반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유다에 투영된 나약한 인간상은 곧 우리의 모습으로 가까이에서 대중적 설득력을 지니며 머물고 있는 것이다. 물질이 신이 된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적 환경과 상황의 선택적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신념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글이 그림 앞에 한 발자국 다가서는 계기가 되고 복잡한 일상을 떠나 하루쯤 그림 앞에서 여유를 갖고 위안을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그림들은 National Gallery of Art 웹사이트를(www.nga.gov)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살바도르 달리 〈Sacrament of the Last Supper〉, 유채화, 166.7 x 267 cm, 1955

공포와 혼돈의 해외자산 자진신고 (OVDP)

이승재 공인회계사

리오 앤 노 회계법인

수년 전부터 해외자산 자진신고(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가 부각되고 강화되면서 특히 한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한인들에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명확한 가이드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로 인한 공포와 혼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OVDP라는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것인데 그 페널티가 무려 자산의 27.5%가 되고 밀린 세금과 그 이외의 페널티를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신고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잘못 걸리면 그 페널티가 무려 75%에 달한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듯합니다. 이에 막대한 수수료를 들여서 신고한다고 하지만 차질 잘못된 가이드로 인해 엄청난 페널티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간략하게나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신문기사와 세미나를 통하여 주지하다시피 해외자산 보고에는 세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FBAR(해외금융 계좌 보고), 둘째는 OVDP(해외자산 자진신고), 셋째는 FATCA(해외금융자산 세금보고). 이중에서 가장 큰 이슈

가 되는 OVDP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 OVDP는 선량한 시민을 타겟으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은 매우 부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확한 취지와 실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해외 은닉자산을 추적하여 미국의 조세 시스템 안으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오기전에 있었던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만약 한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낸 것이라 한다면 OVDP의 27.5% 페널티를 벗어날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 영주권자는 미국내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소득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안낼 목적이 아니라 무지에 의해서 미국세금보고시 누락된 것들, 하지만 그 자산이 있는 나라에는 세금을 낸 경우라면 고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낸 돈으로 해외자산을 구입하고 그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OVDP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하지 아니한 음성자금으로 해외 자산을 구입했으면 그 자산으로부터의 소득발생의 유무와 상관없이 OVDP 룰에 적용되어 총자산의 27.5%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OVDP가 적용될 경우의 페널티와 OVDP의 선택적 철회(OPT OUT)의 페널티



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일 한국서 이민 오기 전에 있었던 집을 전세로 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세라는 개념은 미국에는 없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임대 형식입니다. 집을 빌려주고 그 댓가로 일정액을 받은 후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면 되돌려 줘야 하는 일종의 빌린 돈입니다. 마치 미국에서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 경우 그 전세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가 발행했다면 OVDP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OVDP를 경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만일 전세금이 20만

달러이고, 그 전 세금을 2008년에 은행에 넣어서 매년 이자가 5천달러씩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OVDP에 의하면 215,000 달러에 대한 27.5% 페널티인 \$59,125과 더불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과 그에 대한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OVDP의 선택적 철회(OPT OUT)를 이용하면 안낸 세금과 페널티를 내고 FBAR을 보고하지 않은 페널티를 연간 1만 달러로 해서 3만 달러가 됩니다. (FBAR의 페널티는 최대가 1만달러이고 고의성의 없을시 감해질 수 있음)

또 다른 예로 만일 은행이나 증권계좌의 총액수가 2백만달러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여 한국에는 세금을 냈지만 미국에는 보고가 안된 경우라고 하면 이 역시 OVDP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말하면 그 총액수의 27.5%가 OVDP의 페널티로 우선 적용되어 40만달러의 페널티를 내야합니다. 물론 이자 소득에서 나온 세금은 별도입니다. 하지만 OVDP의 선택적 철회(OPT OUT)가 되면 그 페널티는 일년당 만달러입니다. 3~4년 한다고 해도 OVDP의 페널티보다는 매우 적은 3~4만 달러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OVDP(해외자산 자진신고)의 중압감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적 철회(OPT OUT)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703)533-7200, (301)593-1744





길원이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2010년 미국을 방문했던 서길원이를 기억하세요? 그는 바로 충주성심학교 야구부 포수를 맡고 있고, 청각 장애인 전문대학인 갈라우렛 대학 부속 고등학교와의 친선 야구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왔었던 아이입니다. 방문 당시 고1이었던 길원이가 지금은 고3,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갈라우렛 대학교를 알고부터 길원이는 새로운 꿈을 키워 왔습니다. 갈라우렛 대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 농인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 보는 꿈, 그리고 한국 농인 최초의 갈라우렛 야구선수가 되는 꿈, 그리고 한국 최초의 청각장애인 야구지도자가 되는 꿈이 길원이가 꾸는 꿈입니다.

갈라우렛 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있는 커티스 프라이드는 메이저리그 선수로 활약했던 농인 야구 선수로 미국 농인들에게 또 하나의 영웅이며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 아이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프라이드 감독은 특히 선수들 중 포수로 활약했던 길원이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길원이는 할머니, 부모님 두분 모두 3대째 청각장애인입니다. 홍성에서 태어난 길원이는 장애인 특수 학교가 있는 충주에서 혼자 생활했으며 부모님은 길원이가 9살 때 이혼 한 후 할머니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길원이는 야구선수로서 꾸준히 훈련하여 일반 고교생들과 당당히 겨루는 주말 리그 고교야구대회에서 2할1푼1리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봉사활동도 하였고, 아시아 태평양 농인 야구 대회 국가대표선수, 장애인 야구대회, 아프로배 야구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개인상을 5번이나 받았으며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농아인 야구대회에서도 2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길원이는 학생회장, 야구부 주장 등을 맡고 있고 성적도 1,2등으로 우수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임버릇처럼 선생님들은 아깝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길원이의 꿈을 이루기엔 너무도

어려운 현실을 잘 아시기 때문이겠지요.

한국 대학 입학 준비를 하는 한편 길원이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갈라우렛 대학 입학에 필요한 영어와 영어 수화를 익히는 어학연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첫 학기의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은 충주성심학교 교장을 맡았던 수녀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인 길원이의 가정 형편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길원이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길원이의 미국 유학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농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성심학교 야구부는 11년 전 농아 야구부로 처음 창단되었는데 지금은 각 모마다 14개 농아 야구팀이 있고 전

국대회도 3~4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는 농아인 프로선수와 지도자들이 있는데 비해 한국에는 농아인 코치나 감독은 없습니다. 길원이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길원이는 한국 최초의

청각장애인 야구 지도자가 되는 셈입니다.

길원이의 꿈을 이뤄주시고 한국 최초의 청각장애인 야구 지도자를 키워주세요.

우리는 또 한번의 기적을 기다려 봅니다. 누군가 길원이의 소중한 희망을 감싸 주신다면 그 희망이 이루어져 사랑으로 다시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희망은 한국 농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델을 보여줄 것입니다.



길원이의 후원자가 되어주실 분

- ◇주소: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메모에 '길원이 후원'이라고 써 주세요)
- ◇문의: 571-432-9868
- ◇본지 20페이지의 후원신청서를 사용해주세요



우리 요양원의 해결사가 되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장해영(마리아) 원장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영월군 노인요양원

영월군 노인요양원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위치한 조용한 곳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2010년 영월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곳, 양지바른 언덕 아래 자리잡은 요양원은 오는 사람마다 명당자리가 틀림없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해 하시는 곳, 일상의 삶이 단조롭지만 큰 소용돌이가 없기에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는 공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모여 저마다 살아온 환경과 특성이 다르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라 요양보호사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열 번을 같은 일로 불러도 뛰어가야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중얼거리며 낱말을 꼬박 새기도 하지요. 방금 식사를 하시고도 또 달라고 하시는 어르신들, 이젠 자녀들의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아기가 되어 세월을 거슬러 살고 계십니다.

영월 노인요양원은 지리적으로 시골 오지에 있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은 충족하나 지역특성상 물적, 인적자원이 너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분위기 또한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아직 우리나라는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밤낮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다가 인대가 늘어나고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휴식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몇 배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요양보호사들 모두는 봉사직이며 사랑을 바탕으로한 이타적인 직업정신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직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볼 새도 없이 밤낮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면 목이며 허리, 손목부상은 일상적인 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론 파스를 붙이고 복대를 차고서라도 어르신들에게 달려가야 하지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늘 부족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원복지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영월 노인요양원의 후원자가 되어주실 분

◇주소: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메모에 '영월 노인요양원 후원'이라고 써 주세요)

◇문의: 571-432-9868

◇본지 20페이지의 후원신청서를 사용해주세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초음파와 치료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재정상 구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척박한 시골동네에서 일백만원의 거금을 마련하는 길이란 꿈이며 소망일 따름이지요. 어르신들

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으나 의료기기 구입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기에 그저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호흡기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고, 하루종일 주방에서 물일을 하는 조리원 선생님은 휴게시간에 잠시라도 몸을 녹일 전기장판이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하십니다.

얼마나 알뜰하게 살고 있는 지 모릅니다. 다행히 햇빛 잘 드는 장소라 낮에는 전등도 켜지 않고 지내지요. 어르신들 방은 난방을 하지만 사무실은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난방도 하지 않는답니다. 아끼고 절약해서 어르신들을 위해 좋은 반찬 한 가지라도 더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선생님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양원의 평생 은인이 되어 주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주소: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다래골길 51

◇전화: 033-373-5300



마다가스카르의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편지

+ 찬미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다가스카르에 근무하는 이 아네스 수녀입니다.

우선 마다가스카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마다가스카르는 남한의 4배가 되는 아주 큰 섬인데요, 아주 옛날에는 이곳이 바다 속에 잠겼던 곳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바다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와 땅이 분리되었답니다. 거대한 바위 산으로 연결된 산에 파도 물결 무늬가 있고 물 속에 잠겼던 곳이라서 깨끗하고 동서남북이 아주 광활한 대자연을 자랑합니다. 나무는 별로 없어 산 너머 산, 굽이굽이 산 언덕들이 한 눈에 보여 아름다운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명상하게 됩니다.

땅이 넓은 데 비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여 먼 거리를 몇 시간씩 걸어서 다니고 사람들의 숫자가 땅을 다 채우지 못해 사막과 같은 황무지의 연속인데 가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물이 귀하고 경작지를 드물게 봅니다. 즉,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러나 땅이 넓고 아름다워서 그런 지 사람들의 심성은 낙천적이고 춤과 노래를 즐기지요.

제가 부임해 살고 있는 곳은 '부히마리나' 산 언덕이지만, 그곳을 떠나 아주 멀리 차로 13시간 거리인 마다가스카르 땅 아래, 남서쪽 바닷가에 가까운 '톨레아'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번에 한국에서 새로 온 같은 수도회의 선교사 수녀님에게 마다가스카르 말을 도와주면서 한 3개월 머물 예정입니다.

톨레아는 마다가스카르의 관구가 있는 곳으로 남쪽이라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은 아프리카 열대 기후와 같아요.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처음 왔을 때 톨레아에서 3년 살았던 지 톨레아는 제 고향과 같이 느껴집니다.

이곳 관구의 톨레아 수녀원에는 매주 금요일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빵을 받기 위하여 70~80명 옵니다. 그러면 그들을 돌보는 한 수녀님이 긴 막대기 모양의 빵을 4등분해서 나누어줍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이면 수녀님은 빵 바구니를 들고 오전 내내 마당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요. 5명, 10명, 3명, 2명 등 제각기 오는데 그 때마다 이들을 맞이하면서 주의 기도를 하고 빵을 나눠주지요. 저는 수녀님 뒤에 말뚝이 서서 이들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4등분한 빵은 제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누르면 납작하게 되어 별로 먹을 게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빵을 하나 받기 위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눈시울이 뜨근해졌습니다. 그 후 제가 그 수녀님에게 말씀 드렸어요, “제가 도와 드릴 테니 다음 주부터 3등분해서 주세요...” 라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 일 년 동안 필요한 빵이 약 1,100여 개 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쌀을 1인당 한 자루씩 나누어줍니다. 빵이 한 개에 400 아리아리 (\$100=20만 아리아리), 쌀 한 자루에 65,000 아리아리이니, 일 년에 이들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약 5백60만 아리아리 (약 \$2,800)입니다.

톨레아의 '노틀담 드 나자렛'이라는 학교는 저



의 첫 소임터입니다. 그 학교 안에 “bon scours”라고 해서 따로 한 교실을 만들어 그곳에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날마다 간식과 점심밥을 제공해 줍니다. 제일 처음 이 “bon scours”가 생긴 동기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담당하는 한 수녀님이 학비가 없어 학교에 못 다니고 거리에서 놀기만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공을 하나 사들고 길거리로 나갔답니다. 그러면서 몇몇 아이들과 놀이를 하셨는데 그 후에 “수녀님, 저도요, 저도요...”하면서 아이들이 놀기 시작하자 그 수녀님은 “공놀이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학교로 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명이 넘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쉬운 불어 읽기 쓰기를 가르쳤고, 학용품과 사탕을 사주곤 했지요.

이번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기빙트리에는 톨레아에 있는 가난한 어린이 명단 50명을 써 보내 드렸지만 받는 선물은 부히마리나에 있는 어린이 50명과 톨레아의 어린이 50명에게 반반씩 나눠 줄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지요!

카리타스와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번 성탄 그곳에도 하느님의 축복을 기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이 아네스 수녀 드림

마다가스카르 어린이 후원

◇주소: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메모에 '마다가스카르'라고 써 주세요)

◇문의: 571-432-9868

◇본지 20페이지의 후원신청서를 사용해주세요

후원회비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6월 ~ 2013년 12월까지)

일반 / 업소 / 단체 / 기관	
강금생	~2013년 12월
강명희 (에밀리아)	~2013년 12월
강윤선 루시아	~2012년 12월
곽종무	~2013년 12월
구귀옥 (아나타시아)	~2013년 7월
구춘희	~2012년 12월
권순 (리오바)	~2013년 12월
금화열 / 로사	~2013년 12월
김경진	~2013년 12월
김경호 / 김영혜	~2013년 12월
김남래 (모니카)	~2012년 12월
김남식 (안드레아)	~2013년 12월
김남식 / 율리아나	~2013년 12월
김다슬	~2013년 12월
김동연	~2013년 12월
김동한	~2013년 12월
김동환	~2013년 12월
김두하 / 연희	~2013년 12월
김명희 (율리아나)	~2013년 12월
김문철 / 카타리나	~2013년 12월
김박철 / 안젤라	~2013년 12월
김성현	~2013년 12월
김승현 / 현동	~2013년 12월
김영애	~2013년 12월
김영희 아네스	~2013년 12월
김원정	~2013년 4월
김윤상	~2012년 12월
김은자 루시아	~2013년 12월
김재인 (안나)	~2013년 12월
김정자 Spencer	~2013년 12월
김정태	~2012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12년 2월
김정희 / 준수	~2013년 12월
김진석 / 소피아	~2013년 12월
김풍일 / 세실리아	특별후원
김호찬	~2012년 12월
김홍자 (아네스)	~2013년 12월
김화동	~2012년 12월
노상문	특별후원
민금선 마리아	~2013년 12월
민들레회	~2013년 12월
민일성 / 멜라니아	~2013년 12월
박민규	~2013년 12월
박연실 Silliana	특별후원
박종J	~2013년 12월
박찬호	~2013년 12월
배석범	~2013년 12월
서봉임	~2013년 12월
서영숙	~2013년 12월
서정길	~2012년 12월
소근화 (도미나)	~2013년 12월
소병각	~2013년 12월
손양조	~2012년 12월
송상훈 / 마리아	~2013년 12월

일반 / 업소 / 단체 / 기관	
신세균	~2013년 12월
안나회	~2013년 12월
안병화	~2013년 12월
어도로테아	~2013년 12월
어미연	~2013년 6월
어인경	~2013년 12월
염윤기	~2012년 12월
오성웅	~2013년 12월
오영환	~2013년 12월
오진환	~2013년 12월
우기업 / 데레사	~2013년 12월
원승철	~2013년 3월
유정식	~2012년 12월
이갑현	~2013년 12월
이강영 (데오도로)	~2013년 12월
이기녕	~2012년 12월
이문희	~2013년 12월
이수호	~2013년 12월
이순남	~2013년 12월
이순용 (안젤라)	~2013년 12월
이순희 아네스	~2013년 12월
이승구 / 분다	~2013년 12월
이신규	~2012년 12월
이알비나	~2013년 12월
이영희	~2013년 12월
이예자	~2012년 12월
이우진 / 김숙희 / 이명	~2013년 12월
이은배	~2013년 10월
이정일	~2013년 12월
이천우 / 헬레나	~2013년 12월
이태선	~2013년 12월
이태옥 / 리타	~2013년 8월
이창선	~2013년 10월
임계빈 / 데레사	~2012년 12월
장경옥 / 윤성	~2013년 12월
전태진 / 전기복	~2013년 12월
정창조 / 루시아	~2013년 10월
조남식	~2013년 12월
조봉순 (아가다)	~2013년 12월
주삼성 / 레지나	~2013년 12월
최마리아	~2013년 12월
최재필	~2013년 12월
하명희 (말가리따)	~2013년 12월
하상희	~2013년 12월
한마리아	~2013년 12월
한정현	~2013년 12월
한중희 / 영희	~2013년 12월
허영숙	~2013년 12월
홍성철 / 세실리아	~2013년 12월
홍진원	~2013년 12월
황정자 (데레사)	~2013년 12월
Garvey, Cheryl K	~2013년 12월
Kim, John / Regina	~2013년 4월
Pierce, Young-Mi	~2013년 12월

아동결연 / 시설후원	
루치아 쉼터	
박찬영	~2013년 12월
송승혜	~2013년 12월
오승은	~2012년 12월
이명구 수산나	~2013년 12월
이윤아 켄마	~2013년 12월
최윤옥	~2012년 12월
목포 작은 꽃들의 집	
김돈현	~2013년 12월
김영식/김소영	특별후원
바오로회	특별후원
베론성지	
서봉임	~2013년 12월
북평성당	
김병윤	~2013년 10월
윤경자	~2013년 12월
서울장학결연	
최병렬 / 최경희	~2013년 12월
김명철 / 데레사	특별후원
유모니카	특별후원
영월 다문화지원센터	
김병윤	~2013년 12월
유자경	~2013년 12월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강명희 (에밀리아)	~2012년 12월
김병윤	~2013년 10월
김용상	~2012년 12월
매죽회 (2명 아동후원)	~2013년 10월
박지영 / 이창훈	~2013년 12월
서윤배 / 데레사	~2012년 6월
윤경자	~2013년 12월
이연철 / 박희임	~2013년 12월
장경옥 / 윤성	~2013년 12월
정일희	~2013년 12월
조영혜	~2013년 12월
차명자	~2013년 12월
한중희 / 영희	~2013년 12월
원주 비안네성소	
구귀옥	~2013년 7월
금화열	~2013년 12월
김두하	~2013년 12월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김병윤 / 안나	~2013년 11월
이명자	~2013년 12월
이연철 / 박희임	~2013년 12월
조인희 (이루시아)	~2013년 12월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김두하/연희	~2013년 12월
김미경	~2012년 12월
김선민 Andrew	~2013년 12월
김효중 아네스	~2013년 12월
박용걸/완다	~2013년 12월
유마리아	특별후원
유정식/루시아	~2012년 12월

아동결연 / 시설후원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한중희/안젤라	~2013년 12월
제천 노인복지관	
조프란치스코	~2013년 12월
천사들의 집	
박인옥 / 도원	~2013년 12월
임영재	~2013년 12월
바오로회	특별후원
충주성심학교 야구부	
김명철 / 데레사	~2013년 12월
김소화	~2013년 12월
김어진	~2013년 12월
박인옥 / 박도원	~2013년 12월
신세균 / 베로니카	~2013년 12월
횡성 종합사회복지관	
김미정	~2013년 12월
김영식 / 김소영	~2013년 12월
익명 P-2	~2013년 12월
이용선 (4명 아동후원)	~2013년 12월
이지연 마리아	~2013년 12월
흑빛공부방	
김순섭	~2013년 10월
늘푸른여성골프회	~2013년 12월
박완다	~2013년 12월
이진희	~2012년 10월
차창옥	~2013년 2월
최평란	~2013년 12월
편성대	~2013년 12월
한귀병	~2013년 11월
네팔	
김명숙	~2013년 12월
김명철 / 소화	~2013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13년 12월
김헬리시아	~2013년 12월
박수영	~2013년 12월
변총식	~2013년 12월
안크리스토퍼	~2013년 12월
이명자	~2013년 12월
이은배	~2013년 12월
허영숙 (2 아동후원)	~2013년 12월
네팔 St. Paul School	
신현준 / 이은혜	특별후원
마다가스카르	
김데레사	특별후원
김헬리시아	특별후원
송글라시아수녀	특별후원
방글라데시	
이명자	특별후원
사랑의 선교 수사회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성심원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예과도르	
백승태 / 마리아	특별후원

후원회비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6월 ~ 2013년 12월까지)

아동결연 / 시설후원	
에과도르	
유보나 / 유지광	~2013년 12월
제천 노인파푸아 뉴기니복지관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변레지나	~2013년 12월
안순상팀	특별후원
필리핀 빠야따스	
신세균	~2013년 12월
이기녕	특별후원
재정기금	
김돈현	~2013년 12월
김명철	~2013년 12월
윤경자	~2013년 12월
차명자	~2013년 12월
홍세실리아	~2013년 12월
Hi-Tech Bankcard	~2012년 6월

사랑의 모금통			
BP Short Food / 박진욱	2013년 2월, 6월, 10월	Jon's Cafe / 최용태	2013년 7월
Ballston Cafe / Mike Kim	2013년 3월	Liberty Cafe / 박루시아	2013년 5월, 8월
Beulah Cleaners / 김일근	2013년 6월	Maynine Inc / 용복순	2013년 1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Brafferton Cleaners / 이갑용	2013년 2월	Monument Cafe / 최지돈	2013년 12월
Buying Together	2013년 2월	NADA Cafe / Choi, Sandy	2013년 12월
Chesterbrook Excel / 김영술	2013년 9월	Paddock Cleaners / 한귀병	2013년 9월
City Cleaners / 김안젤라	2013년 10월	Skyline Cafe	2013년 2월, 11월
Fairlakes Cafe	2013년 3월, 6월, 9월	Spices & Beyond / 윤태혁	2013년 3월
Fair Oaks Cafe	2013년 12월	Sun Dry Cleaners / 권순 리오바	2013년 12월
Greatfalls Cleaners / 박원균	2013년 5월	Uptown Market / 김소피아	2013년 4월
Green Cleaners / 이수호	2013년 10월	Yes! Market / Gary Cha	2013년 1월
John's Cafe / 김재영	2013년 3월	헤어스캐치 / 이정연	2012년 1월, 3월
후원금 내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되신 분, 주소가 변경된 회원님은 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전화: (571)432-9868 또는 email: caritasva@gmail.com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2년 1월1일 ~ 2013년 12월 31일)

김동연 / 김동환 (일반), 박지영 / 이창훈 (원주복지관), 신세균 / 베로니카 (필리핀, 충주성심, 원주), 박수영 (네팔), 어미연 (일반), 오영환 (일반), 조인희 (정선복지관), 이순희 아네스 (일반), 이영희 (일반), 이창선 (일반)

새해의 기도

-이해인 수녀

1월에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동안 쌓인 추한 마음 모두 덮어 버리고
이제는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하소서

2월에는
내 마음에 꿈이 싹트게 하소서
하얀 백지에 내 아름다운 꿈이
도렷이 그려지게 하소서.

3월에는
내 마음에 믿음이 찾아오게 하소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짐으로
삶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있게 하소서.

4월에는
내 마음이 성실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작은 일 작은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5월에는
내 마음이 사랑으로 설레게 하소서.
우리 삶의 아름다움은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사랑으로 가슴이 물들게 하소서.

6월에는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소서
남을 귀히 여기고 자랑과 교만에서
내 마음이 멀어지게 하소서.

7월에는
내 마음이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어려움을 참고 오랜 기다림이 없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8월에는
내 마음에 쉼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키고 나와 남을 여유있게 볼 수 있는
쉼을 갖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9월에는
내 마음이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마음의 평화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할 때 함께 자라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10월에는
내 마음이 은혜를 알게 하소서.
나의 오늘이 있게 한 모든 이들의 은혜가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소서.

11월에는
내 마음이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아직도 남아 있는 욕심과 미움과 갈등을 버리고
빈 마음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게 하소서.

12월에는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계획한 일을 이루었던 이루지 못했던
지난 한 해의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정기회원	매달 12불이상이면 되실 수 있습니다. 그중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특별회원	후원금액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금액을 언제든지 후원하시면 됩니다.
고국 아동결연	매달 60불씩 후원을 하시게 됩니다. 50불은 결연아동에게 직접 전달되며 10불은 결연아동 관할 복지관 복지 서비스를 후원합니다.
해외아동복지 급식지원	1년에 \$200로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및 급식지원을 하게 됩니다.

회비납부 방법:

- 매 주 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는 Caritas Wonju 로 써 주시면 됩니다.
- 회비는 매달 혹은 3개월, 6개월, 1년치 회비를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연락처 : 571-432-9868/703-968-3010
이메일 : caritasva@gmail.com
웹사이트: www.caritaswonjuva.com

재단 이사장: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
후원회장: 유홍열
고문 변호사: 이인탁
고문 공인회계사: 노상문
재정이사: 강민식, 김글라시아
김명철
조영혜, 차명자
운영이사: 김리나, 윤경자
홍세실리아, 김돈현
유자경, 차명자, 고재오
윤경자, 김글라시아
노상문, 한린다
이데레사
포스터 디자인: 백경화
홈페이지 관리: 하보이
사진촬영: 지수성

본 회지는 매 6개월에 한번씩 발행됩니다.

발간인: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
편집인: 유자경, 이소영, 홍알벳, 신선에
원고 교정: 정영희
편집 Layout: 백경화

간행
원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구 분	정기회원(), 특별회원()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월	\$12() \$20() \$30() \$40() \$50() 기타() 특별회원()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고국아동/공부방 결연 후원 신청서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결연 \$60/월 ()			후원아동/ 공부방이름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급식지원 신청서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1년에 \$200				

길원이 후원 / 영월 노인요양원 후원 / 마다가스카르 어린이 후원 신청서

구 분	길원이 후원 () 영월 노인요양원 후원 () 마다가스카르 어린이 후원 ()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1년 (\$) 또는 매월 (\$) 특별후원 ()				